

카이스트 총장의 말
고3학생이 입시면접에서 내뱉는 말

- ◆ Clear-Cut한 말의 실례
- ◆ 아이들이 죽어갑니다/학교 폭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인성교육을 실시한다/학교에 상담교사의 수를 늘린다.
- ◆ Clear-Cut한 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

.....패권을 쥔 어법이란?

- ◆ ‘징후가 없는 언어 사용’이 바로 ‘패권을 쥔 어법’입니다. 그 어법은 그 사회의 ‘객관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 ◆ ‘객관적인 언어 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원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패권을 쥔 어법이란?

- ◆ 즉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 객관적이고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

에크리튀르

- ◆ ‘에크리튀르’는 집단적으로 선택되고 실천되는 ‘선호’이다.
- ◆ 예를 들면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어느 날 1인칭 표현을 ‘제가’에서 ‘내가’로 바꾸었다.
- ◆ 본인 스스로

에크리튀르

- ◆ 그러나 선택된 ‘주어’는 소년의 발명이 아니라 어느 사회집단이 이미 집합적으로 채용하고 있던 것이다.
- ◆ 소년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 받아들이었을 뿐이다.

에크리튀르

- ◆ 그러나 선택된 ‘주어’는 소년의 발명이 아니라 어느 사회집단이 이미 집합적으로 채용하고 있던 것이다.
- ◆ 소년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 받아들이었을 뿐이다.

에크리튀르

- ◆ 그런데 이 ‘제가’에서 ‘내가’로의 주어의 변화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그의 언어 사용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 발성이나 어휘, 억양이나 글자체 등이 모두 바뀐다.

에크라 튀르

- ◆ 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 복장, 기호품에서 생활 습관, 몸의 움직임까지 소년은 ‘내가’라는 주어에 상응하는 무형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 (만화 캐릭터가 새겨진 잠옷을 입고 잘 수가 없게 된다)

에크리튀르

- ◆ ‘에크리튀르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지닌 ‘자연’적 어법에 부여해야 하는 사회적 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쓰고 있다.

에크리튀르

- ◆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어법의 진리 속에, 즉 지역성 속에 붙들려 있다. 나의 어법과 이웃 사람의 어법 사이에는 격렬한 경쟁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곳으로 끌려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든 어법은 패권을 다투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어떤 어법이 패권을 손에 넣으면 그것은 사회생활의 전역으로 퍼지고 징후가 없는 편견-doxa이 된다. 정치가나 관료가 말하는 비정치적인 언어,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가 떠드는 언어, 일상의 수다. 그것이 패권을 장악한 어법이다.

패권을 쥔 어법이란?

- ◆ 롤랑 바르트는 이처럼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어법이 포함한 ‘예단’과 ‘편견’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 가치중립적인 어법 속에는 그 사회 집단 전원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컨대 근대, 신자유주의, 심리주의)가 깃들여 있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 무조건 만남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 ❖ 육아 휴직 시절의 외로움이 준 교훈을 가슴에 새긴 나는 만남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주로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만남이 많았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 그런데 어떤 엄마(결국 아이 친구의 ‘엄마’일뿐 내 ‘친구’가 되지는 못했던)를 만나고 오면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다.
- ◆ 특히 육아나 자녀 교육에 정통한 엄마들을 만나고 올 때 그 불안은 강도가 높아졌다.
- ◆ 왜 그럴까요?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 유능한 그들에 비해 뭐 하나 아이에게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은 내가 심각한 직무 유기 상태로 느껴졌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고민이 더 커져 버리는 것이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 그건 우리가 속엿말을 나누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 해서 떠들고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방송이 하는 말, 인터넷이 하는 말, 광고가 하는 말들** 속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말인 줄로만 알아 버린 것이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 우리는 맘에 있는 말을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의 말을 나누고 돌아온 것이다.
- ◆ 그리고 그 남의 말의 핵심은 ‘돈을 써라’로 요약될 수 있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 남이 한 말을 내 말인 줄 알고, 남이 내게 심은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로 착각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불안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 ◆ (박현희-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2011, pp143-144)